기억해야 할 것들
창세기 **41:1-57**

어둠 속에서, 다른 밤과 다름없는 밤에 파라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섯 번이나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시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바로는 그저 아무 데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나일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 다산, 번영! 모든 것이 나일강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 가에서 아름답고 살진 일곱 마리의 소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일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일곱 마리의 소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흉한 소가 살진 소를 먹어 치웁니다.

바로가 깨어납니다.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을까요? 다시 잠이 듭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이제는 일곱 개의 이삭이 보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동풍에 의해 얇고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이 일곱 개의 좋은 이삭을 삼키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깊이 번민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들이 꿈을 통해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와 곡식 이삭은 음식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의 소 여신 하토르는 기쁨과 다산, 즉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사진). 이집트의 곡식 신 네페르는 영양과 생계를 상징합니다(사진). 두 꿈 모두 숫자는 7입니다. 7은 운명을 상징합니다. 식량 공급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꿈은 모두, 풍요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빈곤은 바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주 질서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연달아 꾸게 된 두 꿈이 바로를 흔들었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고문들을 부릅니다: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입니다. 이 마술사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마술을 하는 요즘의 마술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공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들의 역할은 신성한 글을 읽고, 별을 읽고, 징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앞에 모였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 사람들이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 위기, 재정적 어려움, 실업, 주택 가격 부담, 도덕적 위기, 긴장된 가족 관계, 불임 등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 고문, 경제 분석가, 정치 분석가, 심리학자, 가족 상담사, 변호사, 마약 중독 상담사, 의사,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충분치 않아 필요한 답이나 우리가 찾는 축복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몇 주 전에 저는 Ayaan Hirsi Ali(사진)의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10년간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동안, 그녀는 최고의 의사와 치료사의 도움으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2004년에 아내가 두 번째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을 제거한 외과의의 보고를 듣고, 저는 아내의 병실로 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주님,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제가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바로의 위기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창세기 41:9-14
9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긴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내고, 부르고, 재빨리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정치인이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감옥에서 급히 왔습니다.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바로의 면전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준비시키는 것은 질레트 면도기나 새 옷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외적인 것일 뿐입니다. 피상적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 요셉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척되는 경험, 노예 생활, 부당한 고발, 투옥, 잊힘을 통해 그를 준비 시키셨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으로 가득 찬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40:14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창세기 40:23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리더십과 행정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왕의 감옥에서 그의 은사는 재빨리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2년을 더 바로의 지하 감옥에서 더 보내야 했을까요? 길고 느리게 움직이는, 단조롭고, 별 볼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축복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대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41:15
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순간, 요셉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장기입니다. 당신 옆에 서 있는 멍청이, 네, 당신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저를 잊지 않았다면, 저는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어땠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붉은 와인보다 더 붉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에서 꾸지람, 원망, 비통함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은 고난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창세기 41:16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분명합니다. 바로의 요청에 응답할 분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는 문자 그대로 "하느님께서 바로의 샬롬에 답하실 것이다"로 읽힙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여, 오직 하느님만이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답이 없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음을 기억하세요.

-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 포섬 트롯에 사는 목사의 아내 도나 마틴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가슴에 떨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 싱크대에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주님, 이 고통을 없애 주시거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녀가 뒷 문으로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고아 아이들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화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운 목적에 압도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가 사명을 받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교회 가족은 77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영화 "Sound of Hope"에서 실화를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는 꿈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었을 때, 그들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흉했습니다. 그가 본 가장 추한 소였습니다. 얼마나 흉했나요,? 소들이 코를 강물에 넣어 물을 마실 때, 그 반사된 모습이 하도 흉해서 그것들이 도망갔습니다!
창세기 41:25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이니이다
요셉의 연설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이중 꿈의 의미에 대해 네 가지를 말합니다.

- 두 꿈은 같은 의미입니다.
- 7마리의 소 또는 곡식 이삭은 7년을 나타냅니다.
- 7년의 풍작에 이어 7년의 기근이 뒤따를 것입니다. 사실, 기근의 해는 너무 심해서 풍년의 해는 잊혀질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기근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부유한 나라의 구호 기관이 없었습니다.
- 창세기 41: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고 그는 그것을 서둘러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그들의 영역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와 그의 궁정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 당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의 두 번째 부분(33-36절)에서 요셉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정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안합니다.

그는 7년의 기근에 대비하기 위한 3가지 행정 계획을 제시합니다.

(1) 이집트 땅에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임명합니다.
(2) 지역 감독자를 임명합니다.
(3) 국가적 배급 시스템을 제도화합니다(생산물의 1/5을 저장)

요셉은 왕권에 대해 담대하면서도 재치 있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바로께서는", 34절 "바로께서는", 35절 "바로의 손에 돌려" 그는 바로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요셉의 계획은 바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1: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것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정 계획은 놀라운 선견지명을 보여줍니다. 그는 몇 초 만에 효과적인 행동 방침을 계획합니다.
꿈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비전, 행정의 선물에서 나왔으며, 이는 이미 보디발의 집과 바로의 감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꿈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리더십과 행정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비범하게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상황에 대한 비범한 통찰력을 주셨고, 그는 압박 속에서도 올바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것이 공익을 위한 공적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족을 통해 사역할 그의 종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 봉사할 그의 사람들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십니다: 정부, 의학, 미디어, 예술, 부동산 개발, 사업, 교육.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선물로써 쓰임 받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이 위협하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분별력과 지혜를 알아봅니다. 그는 요셉을 바로 자신 다음 위치인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히브리인 노예에서 그 시대의 비할 데 없는 권력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놀라운 영향력, 교육적 발전, 군사력, 무한한 부의 땅입니다. 요셉은 이제 지위, 권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땅의 총리"(수석 대신)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의 왕실 인장 반지(문서를 검증하는 왕실 인장), 왕실 의복(고급 린넨과 금 사슬), 왕실 수레(오늘날에는 롤스로이스일까, 람보르기니, 리무진라고 할 수 있을까요?)를 받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박물관에 소장된 무덤 그림에서 이 이집트식 승격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텔-아르마나에서 파라오가 임명한 투투의 사진). 사실, 요셉과 같은 다른 셈족은 이 시기에 이집트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귀족으로 승격된 것은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고 저명한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인 "사브낫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그를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9-10에서 분명하게 말했듯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장에서 요셉은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승진하여 비로에 이어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창세기 41:46의 세부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때에 삼십 세라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팔린 히브리인에서 보디발의 집의 관리인, 바로의 감옥의 관리자, 바로의 집 전체, 즉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의 성격이 이 명성, 권위, 권력의 계절을 견뎌낼 만큼 강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삶이 평탄 할 때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힘들 때 일까요 ? 이 단련되는 시기 동안 어떤 것이 당신을 이끌어 가나요?

- 목에 걸린 금이 아니라, 마음에 걸린 금이 중요합니다.

반지, 왕족의 옷, 왕족의 전차, 새 이름, 새 아내, 귀족적 지위는 그를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 투옥, 버려짐을 통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예 시장과 바로의 감옥이라는 어두운 구석에서 기다리는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시며 일하셨습니다. 정제하고, 준비하고, 조율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욥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8-10).
요셉은 순금으로 되어 나왔습니다. 금을 정련하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결정합니다. 그분만이 단련하시는 분 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승진, 건강, 부, 명예)을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그분의 내적인 일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정제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오는 어떤 일이라도 축복으로 감당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부당하게 고발당했지만 신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지만 신실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조니 카슨은 80년대에 미국 심야 텔레비전을 장악한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니는 "로널드 레이건은 오늘 종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은 그에대해 설명할 겁니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침묵하더라도 사람들은 통역을 합니다.
선교 정치가 J. 오스월드 샌더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득 찬 잔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높여지는 것은 종종 교만과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힘든 시험은 번영입니다."(Robust in Faith, p. 44)

고난으로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삶은 의미(일관성, 중요성, 목적)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근 사람들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저 신실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변화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타이밍에 행동할 것입니다. 마침내 보상이 오면, 교만함 없이 감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그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을 때, 겸손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이집트의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풍요로운 세월 동안 요셉은 또 다른 축복을 받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잊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지만, 이집트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겪은 고통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아픔은 그의 뒤에 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갑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게 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통받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들은 옛 것의 끝, 새 것의 잠재력을 기념합니다. 요셉은 먼저 고난을 이겨낸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부모, 동료,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당신이 받은 수많은 잘못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6-7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그를 지탱하고, 은혜 주시고,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바로와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그의 가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53-57절에서 파라오의 두 가지 꿈이 성취됩니다.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4절에서 7번 나타납니다. 이집트 전체가 요셉에게 옵니다. 온 땅이 요셉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가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의 꿈에서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의문, 고통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삶은 성령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 즉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로마 통치자의 가문이나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권위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그 마을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행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나,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높여져, 지금과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우리 시대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을 계속 이루십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를 가져오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혼자 앉아 있던 병실얘기로 돌아갑시다. 아내는 수술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다시 암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정은 리더십 위기와 재정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아무도 제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호세아 6장." 그래서 저는 페이지를 더듬다가 제 눈이 이 구절에 닿았습니다.

1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는 고통, 질문, 도전 속에서 다음을 기억하세요:

-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 당신의 목에 있는 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금입니다.
-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